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연구

Analytical Study on the Impact on Career Maturity of Students Majoring in Music

박세진* · 라종민**

Sejin Park · Jongmin Ra

초록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을 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5개교 음악전공(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재학생 700명이다. 연구결과는 첫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전공, 학년, 경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성별,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y differences on the career maturity(CM) of students majoring in music between/among their gender, major, grade, career after considering major satisfaction(MS), professor-student interaction(PSI), and musical self-efficacy (MSE). With 700 students majoring in music across five 4 year universities in Seou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M and MS, PSI, and MSE exist. Second, CM between gender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ons among major, grade, and career after considering MSE exist as well. Third, CM between/among gender and career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considering PSI. This study has the meaning of identifying how CM of students majoring in music behaves after considering MS, PSI, and MSE and of providing the possibilities of utilizing those findings for enhancing CM.

Key words: major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musical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 First author, E-mail: sj0416@kookmin.ac.kr

** Corresponding author, E-mail: rems2002@gmail.com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http://dx.doi.org/10.30775/KMES.49.3.01>

I. 서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진리의 탐구와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로 진입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진학하는 여러 이유 중 주요한 목적은 그들의 성공적인 진로를 수행하기 위하여(Herr et al., 2004), 자신이 택한 전공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 및 준비를 요구한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기 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 맞추어 뒤늦게 전공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고 학과에 대한 만족이나 적응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며 장기적으로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Park, 2017; Lim et al., 2016).

반면에 예체능계열의 음악전공 학생들은 비교적 일찍 전공을 선택하여 오랜 시간동안 실기를 준비하여 대학에 입학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노출이 길고 타전공에 비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과 전문성이 높다(Hong, 2018). 전공만족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의욕에서도 강한 의욕을 보이고, 종사하는 직업은 전공과 높은 연계성이 있다(Hong, 2017). 즉 전공만족도는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인식, 전공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Han & Lee, 2013). 앞서 언급한 연구에 비추어볼 때 전공분야의 특수한 배경은 음악전공 학생의 진로 문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는 해당 분야의 진로네트워크와 같은 접근성 부족, 정보부재의 현실적 어려움과 취약함은 음악전공자들의 분야 진로진입에 큰 장벽으로 이어진다(Lee, 2006; Comunian et al., 2014). 또한 예체능 분야 노동시장의 협소함, 고도의 전문성 요구, 직업탐색 및 취업준비활동 등의 직업준비과정에서 나타나는 타전공과의 차별성은 취업성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야기 시킨다(Lim & Yang, 2006).

한편, 음악전공 분야의 진로접근에 있어서 음악 전공자들은 전문적 활동에 대해 다양한 직업 선택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음악 전공자들의 진로접근은 타전공과 차별성을 요구한다(Oakland et al., 2012). 즉 음악 전공자들이 인식하는 진로 및 직업의 특징은 자신의 신념과 개인이 갖는 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심리적 요

인 중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진로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며,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그 분야의 진로나 활동에 강한 흥미를 느끼게 한다(Lent & Hackett, 1987). 더하여 음악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은 음악적 능력 성취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McPherson & McCormick, 1999),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 된다(Bandura, 1997).

음악전공에서 다수 이루어지는 소규모 수업들은 동료, 그리고 학생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높여주고,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전공실기수업은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더욱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얻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교수의 격려나 지지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로 이어진다(Eggen & Kauchak, 2007). 이러한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분야 기량의 성취와 건강한 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자율성 확립에도 도움을 준다(Martin, 1998). 교수와 학생 간에 나타나는 의미 있는 영향력은 전공에 대한 전문영역의 향상과 더불어, 추후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교육환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시기 학생이 갖는 진로성숙은 교육경험, 대인관계, 심리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Kim et al., 2019; Park, 2016; Jeong & Byun, 2017),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 음악전공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로운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전공만족도

전공은 대학 내외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며 이른바 교수와 학생, 개인의 학업, 적성, 흥미 등의 개인적 요인, 그리고 부모, 친구, 직업 등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Han, 2014).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택한 전공은 학습활동 외에도 학생들이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전공을 만족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는 소속된 전공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평가의 정도이다(Han, 2014). 또한 전공만족(major satisfaction: MS)은 전공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즐거움의 정도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Baek, 2007). 즉, 대학생이 느끼는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의 단순한 인식의 판단 이외에 전공을 통해 느끼는 자기인식, 진로 인식 등의 복합적인 경험을 하는 과정으로서 추후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직업에 대한 만족과 깊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Milsom & Coughlin, 2015).

결국 전공은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내 학생들이 속한 존재이며 이것의 만족은 학생들이 진로 및 분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친다. 연구자에 따라 전공만족에 대하여 일반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으로 강조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학생이 소속한 전공은 개인특성의 고유 요인과 다양한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식과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일치한다. 이는 전공만족을 다차원적 및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타당성을 밝힌 연구들로 확인할 수 있다(Astin, 1993; Braskamp et al., 1979; Logue, 2005).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성별, 전공별, 성적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요인과 교수와 관계한 요인들을 구성하여 차이를 검증하거나, 그 외 개인의 특성과 학문 및 직업적 차원의 여건을 반영하여 전공만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시간, 동료와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요인들을 반영하여 다차원적으로 학생들의 전공만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학문적 가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여 일어나는 가르침과 배움을 의미한다(Baek, 2000). 대학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학문적 테두리 안에서 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교류를 하며, 이때 교수와 학생 간의 유지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교수-학생 상

호작용(professor-student interaction: PSI)이라고 한다(Beckett et al., 2016). 즉, 학생은 교수자의 의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의 태도를 갖고, 교수는 학생들을 이로운 방향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 혹은 기대를 갖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적극적인 학문적 참여를 증대하여 결국 학생의 지적 및 사회성 발달, 직업준비에도 이로운 효과로 작용한다(Kuh & Hu, 2001). 대학 내 강의 및 이와 연계한 교육적 활동 등을 통해 일어나는 높은 빈도의 교수와 학생 상호작용은 학생들에게 소속감, 지적인 성장,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stin, 1993). 다시 말하면 교수와 학생 간의 수업내외에서 일어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학습영역과 사회영역의 통합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요인인 것이다(Tinto, 1993). 이는 학생성장과 발달 및 학습 성과, 그리고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가지는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Kim & Choi, 2016; Choi & Yang, 2017; Pascarella & Terenzini, 2005). 이밖에도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전공 및 수업만족의 관계, 그리고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 등과 같은 진로 변인과의 관계성을 밝힌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유의미한 경험적 설명은 학생 개인 및 대학 특성에 따라 조절되어 상이한 관점으로 나타난다(Smart et al., 2000).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성별, 전공, 교육적 경험 및 수준, 성과 등의 조건 하에서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명확한 영향력을 검증 할 시 학생과 대학의 상황, 조건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3. 음악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성과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스스로가 가지는 신념이 포함된 개념이다(Bandura, 1996).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 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인 측면의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여 수행에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은 낮은 자기효능감이 지닌 사람들에 비하여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그 일에 헌신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Bandura, 1982; Latham & Locke, 1991). 즉,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결과 달성을 위해 선택과 행동을 조직하여 지속가능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서(Zimmerman & Martinez-Pons, 1990), 목표성취에 있어서

수반되는 점진적인 계획수립, 지속적 노력과 수행으로 이어져 목표도달 수준에 대하여 강한 예측력을 지닌다(Zimmerman et al., 1992). 또한,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연계하여 요구되는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Bandura, 1977),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와 믿음이 진로 영역에서 구체적인 선택과 바람직한 행동이 가능하도록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새로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이 갖는 신념이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경험에 의하여 상황과 행동에 익숙해지고 숙련되어 성과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신에 대한 신념은 특수적인 자기효능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Oh, 2002). 또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활동, 상황적 환경에 반응하여 특수화된 자아인식의 관점이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측정 기준이 특수화 될수록 인간의 행동 및 정서적인 반응의 예측정도는 정교해진다(Bandura, 1982).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기효능감과 다른 기대 구성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특정한 기준 과제를 검토 할 필요성 즉, 음악 자체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Ritchie & Williamon, 2011). 특수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은 성취지향적인 특성과 흐름을 같이하고, 음악적 영역과 관련이 있다(McPherson & McCormick, 1999). 따라서 음악적 기술을 연마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전공자들과 관련성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음악적 자기효능감(musical self-efficacy: MSE)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음악분야에서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전공자의 음악적 능력과 기량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실현적인 암시를 만들고 이와 관련한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로서 음악적 영역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니는 학생들에게서 연주몰입, 연주만족과 같은 연주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좋은 수행결과가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Lim & Cho, 2017; Jang & Sim, 2013).

4. 진로성숙도

진로성숙(career maturity: CM)은 진로탐색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쇠퇴하는 시기까지 진로발달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진로 인식의 정도로서(Super, 1957),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일관성 및 현실성을 반영한다(Crites, 1978). 특히, 진로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대학 시기는 진로 및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이고, 진로와 관련한 문제들을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 및 경험을 쌓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Ginzberg, 1951). 진로 및 직업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을 할 때 비로소 진로성숙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행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 및 과업의 탐색은 좀 더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준다(Lee, 2013).

한편 진로성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예견되고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나며, 대학시기 학생이 갖는 진로에 대한 중요성의 개념을 진로성숙으로 접근한 연구들을 인구학적, 심리적, 대인관계, 교육경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별, 연령, 학년 등의 인구학적 측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진로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나거나(Kim & Moon, 2011; Lee, 2014), 반대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나는 연구(Jo & Koo, 2016), 그리고 성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연구가 혼재한다(So & Park, 2016). 연령이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체계적으로 변화한다고 하였으나(Super, 1957), 연령 증가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도 있다(Kim & Choi, 2016; Lee, 2014).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자아개념 등의 심리적 측면의 변인들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Jeong & Byun, 201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Lee, 2014), 그리고 자아개념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Choi, 2019).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교우관계 등의 대인관계 측면의 변인들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연구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실용음악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서 가능성을 밝힌 연구(Park & Ra, 2019), 그리고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Jeong & Byun, 2017). 전공만족, 취업준비, 진로교육 참여 등의 교육경험 측면의 변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를 제시한 연구로는 전공만족이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제시한 연구(Park & Ra, 2019; So & Park, 2016), 대학수업 및 경험, 수업참여, 취업준비경험, 그리고 진로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을 밝힌 연구가 있다(Im & Kim, 2019).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 5개교 음악을 전공(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하

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한 달 간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수집된 748명의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문항의 누락된 응답 자료를 완전 제거법(list wise deletion method)을 통해 제외한 700부의 자료를 본 연구 분석에 최종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700명 중 여학생이 486명(69.4%)으로 남학생 214명(30.6%)보다 더 많았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245명(35.0%)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그 뒤로 2학년이 195명(27.9%), 3학년이 145명(20.7%), 4학년이 115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작곡전공 학생이 240명(3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관현악전공 197명(28.1%), 피아노전공 139명(19.9%), 성악전공이 124명(17.7%)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 살펴보면, 음악을 전공한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91명(4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30명(32.9%), 15년 이상이 124명(17.7%), 1년 이상 5년 미만이 55명(7.9%)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학생의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의 차이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Ha(2000)과 Cho(2008)이 사용하고 Song(2013)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공만족도는 28문항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961로 나타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척도의 신뢰성을 보여준다(Nunnally, 1978). 둘째, 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Jeong(2010), Ok(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척도는 28문항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965로 나타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척도의 신뢰성을 보여준다(Nunnally, 1978). 셋째, 학생들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해 Park, et. al. (201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16문항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881로 나타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척도의 신뢰성을 보여준다(Nunnally, 1978).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보기 위해 Jeong(2010), Ok(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성숙도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성숙도는 26문항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866으로 나타난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척도의 신뢰성을 보여준다(Nunnally, 1978).

3.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성을 살펴보고,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를 통해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연속변수로 측정된 공변수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음악전공 대학생이 갖고 있는 각 공변인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로성숙도를 단순히 범주형으로 측정한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로 살펴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후 온전히 진로성숙도에 대한 음악전공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Table 1>은 의 일반적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술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음악적 자기효능감(3.45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전공만족도(2.850), 교수-학생 상호작용(2.703), 진로성숙도(2.68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편포도와 첨도값은 Lei & Lomax(2005)가 제시한 절대값 2를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700)

Domain	M	S·D	SK	KT
Major satisfaction(MS)	2.850	0.442	-0.119	-0.458
Professor-student interaction(PSI)	2.703	0.433	-0.434	-0.016
Musical self-efficacy(MSE)	3.455	0.614	0.718	-0.189
Career maturity(CM)	2.688	0.377	0.330	-0.15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SK: Skewness, KT: Kurtosis

2. 변인들 간 상관관계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로 살펴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성숙도는 음악적 자기효능감($r = .397, p < .01$)과 교수-학생 상호작용($r = .371, p < .01$)과 비교해 전공만족도와 높은 관계($r = .476, p < .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371 \leq r \leq .714, p < .01$)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N=700)

Domain	MS	PSI	MSE	CM
MS	1.00			
PSI	.714**	1.00		
MSE	.510**	.379**	1.00	
CM	.476**	.371**	.397**	1.00

** $p < .01$

<Table 2>는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로 살펴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는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각각의 관계만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다소 과대 추정될 수 있다. <Table 3>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을 고려한 진로성숙도와 독립변인의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 분석결과이다.

<Table 3> Partial correlation (N=700)

Domain	MS	PSI	MSE
MS	1.00		
PSI		1.00	
MSE			1.00
CM	.241**	.216**	.203**

** $p < .01$

〈Table 3〉과 같이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 = .241, p < .01$). 또한 전공만족도와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진로성숙도의 관계($r = .216, p < .01$),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r = .203,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각 변인들을 고려한 진로성숙도에 대한 공분산분석

〈Table 4〉는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에 제시된 분석결과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편포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i & Lomax, 2005)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gender

(N=700)

Domain	Gender	n	M	S·D	SK	KT
MS	Male	214	2.853	0.497	-0.131	-0.800
	Female	486	2.849	0.415	-0.111	-0.285
PSI	Male	214	2.770	0.425	-0.752	1.174
	Female	486	2.674	0.433	-0.307	-0.374
MSE	Male	214	3.513	0.651	0.476	-0.687
	Female	486	3.429	0.596	0.836	0.134
CM	Male	214	2.689	0.379	0.383	-0.177
	Female	486	2.678	0.376	0.307	-0.131

〈Table 5〉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진로성숙도에 나타나는 성별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이다. 〈Table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공만족도와 성별 사이에 나타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학생 상호작용($F = 111.855, p < .01$)과 음악적 자기효능감($F = 130.676, p < .01$)에서만 성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Table 5> ANCOVA of career maturity between gender

(N=700)

Domain	Gender	CM		Marginalized CM		F
		M	S·D	M	S·E	
MS	Male	2.689	0.379	2.688	0.023	0.108
	Female	2.678	0.376	2.679	0.015	
PSI	Male	2.689	0.379	2.663	0.024	111.855**
	Female	2.678	0.376	2.688	0.016	
MSE	Male	2.689	0.379	2.674	0.024	130.676**
	Female	2.678	0.376	2.685	0.016	

** $p < .01$ S·E: Standard error

<Table 6>은 전공(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차이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Table 6>에 제시된 분석결과 관현악 전공은 모든 영역에서 타 전공(성악, 피아노, 작곡) 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 음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작곡전공 학생의 평균이 가장 낮고,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진로성숙도에서는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편포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i & Lomax, 2005).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major

(N=700)

Domain	Major	n	M	S·D	SK	KT
MS	VM	124	2.843	0.474	-0.286	-0.486
	PM	139	2.837	0.421	-0.062	-0.155
	OM	197	2.918	0.483	-0.293	-0.470
	CO	240	2.807	0.394	0.054	-0.694
PSI	VM	124	2.709	0.432	-0.319	-0.788
	PM	139	2.667	0.454	-0.787	0.921
	OM	197	2.752	0.470	-0.532	0.039
	CO	240	2.681	0.386	-0.149	-0.664
MSE	VM	124	3.430	0.573	0.756	-0.288
	PM	139	3.522	0.673	0.569	-0.273
	OM	197	3.629	0.631	0.496	-0.645
	CO	240	3.285	0.537	0.966	0.519
CM	VM	124	2.670	0.363	0.161	-0.045
	PM	139	2.635	0.398	0.279	-0.667
	OM	197	2.709	0.412	0.630	-0.047
	CO	240	2.692	0.338	0.051	-0.270

VM: Voice music, PM: Piano music, OM: Orchestral music, CO: Composition music

〈Table 7〉은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진로성숙도에 나타나는 전공별 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이다. 〈Table 7〉에 제시된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전공 사이에 나타난 상호작용과 전공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자기효능감($F = 7.989, p < .01$)만 전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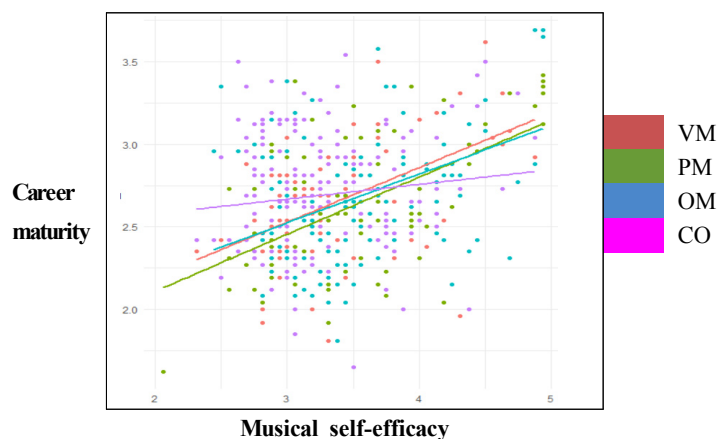
또한 [Figure 1]은 전공(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에 따라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7> ANCOVA of career maturity among major

($N=700$)

Domain	Major	CM		Marginalized CM		<i>F</i>
		<i>M</i>	<i>S-D</i>	<i>M</i>	<i>S-E</i>	
MS	VM	2.670	0.363	2.674	0.030	1.307
	PM	2.635	0.398	2.642	0.028	
	OM	2.709	0.412	2.685	0.024	
	CO	2.692	0.338	2.708	0.022	
PSI	VM	2.670	0.363	2.669	0.032	0.792
	PM	2.635	0.398	2.650	0.030	
	OM	2.709	0.412	2.695	0.025	
	CO	2.692	0.338	2.699	0.023	
MSE	VM	2.670	0.363	2.678	0.030	7.989**
	PM	2.635	0.398	2.613	0.029	
	OM	2.709	0.412	2.658	0.025	
	CO	2.692	0.338	2.707	0.023	

** $p < .01$



[Figure 1] Career maturity by major considering musical self-efficacy

〈Table 8〉은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것으로,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8〉에 제시된 분석결과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포물선 곡선을 보이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편포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i & Lomax, 2005).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grade

(N=700)

Domain	Grade	<i>n</i>	<i>M</i>	<i>S·D</i>	<i>SK</i>	<i>KT</i>
MS	1	245	2.903	0.382	-0.119	-0.673
	2	195	2.875	0.464	-0.088	-0.759
	3	145	2.822	0.488	0.042	-0.542
	4	115	2.731	0.440	-0.245	-0.050
PSI	1	245	2.736	0.393	-0.228	-0.642
	2	195	2.718	0.429	-0.504	-0.176
	3	145	2.675	0.488	-0.533	0.283
	4	115	2.643	0.446	-0.318	0.016
MSE	1	245	3.353	0.521	0.622	-0.075
	2	195	3.567	0.686	0.533	-0.726
	3	145	3.518	0.661	0.792	-0.437
	4	115	3.400	0.571	0.598	0.001
CM	1	245	2.691	0.338	0.286	-0.337
	2	195	2.723	0.397	0.397	-0.884
	3	145	2.644	0.421	0.646	0.429
	4	115	2.639	0.356	0.332	0.719

〈Table 9〉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진로성숙도에 나타나는 대한 학년별 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9〉에 제시된 분석결과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상호작용과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학년과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8.933$,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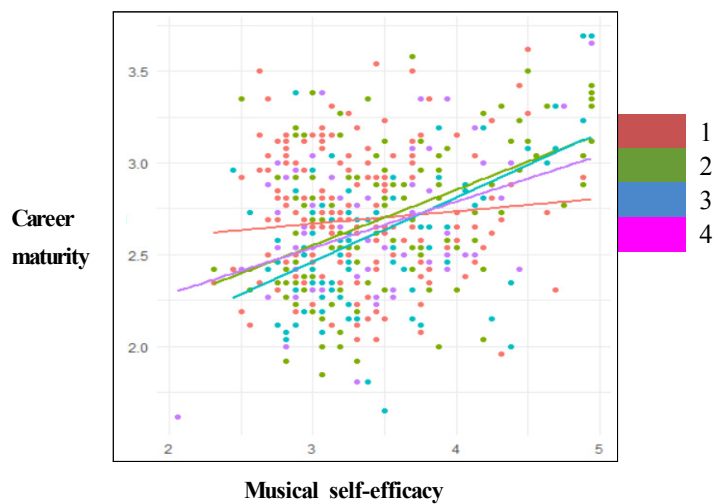
또한 [Figure 2]는 학년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9> ANCOVA of career maturity among grade

($N=700$)

Domain	Grade	CM		Marginalized CM		<i>F</i>
		<i>M</i>	<i>S-D</i>	<i>M</i>	<i>S-E</i>	
MS	1	2.691	0.338	2.674	0.021	1.014
	2	2.723	0.397	2.713	0.024	
	3	2.644	0.421	2.657	0.028	
	4	2.639	0.356	2.693	0.032	
PSI	1	2.691	0.338	2.683	0.022	1.219
	2	2.723	0.397	2.719	0.025	
	3	2.644	0.421	2.656	0.029	
	4	2.639	0.356	2.657	0.033	
MSE	1	2.691	0.338	2.699	0.022	8.933**
	2	2.723	0.397	2.690	0.025	
	3	2.644	0.421	2.622	0.028	
	4	2.639	0.356	2.653	0.032	

** $p < .01$



[Figure 2] Career maturity by grade considering musical self-efficacy

〈Table 10〉은 경력(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성이다. 〈Table 10〉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1년 이상~5년 미만 경력을 지닌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다른 경력(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진로성숙도에서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낮고, 음악적 자기효능감 영역에서는 5년 이상~10년 미만 경력을 지닌 학생들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career(year)

(N=700)

Domain	Career(year)	n	M	S·D	SK	KT
MS	Less than 5	55	3.000	0.445	-0.508	-0.662
	5 - 10	230	2.824	0.432	-0.193	-0.210
	10 - 15	291	2.847	0.429	0.044	-0.683
	Over 15	124	2.837	0.477	-0.187	-0.254
PSI	Less than 5	55	2.807	0.401	-0.477	-0.355
	5 - 10	230	2.702	0.405	-0.217	-0.711
	10 - 15	291	2.691	0.443	-0.524	0.422
	Over 15	124	2.687	0.470	-0.469	-0.158
MSE	Less than 5	55	3.604	0.556	0.152	-0.697
	5 - 10	230	3.327	0.595	1.066	0.553
	10 - 15	291	3.486	0.618	0.707	-0.213
	Over 15	124	3.551	0.630	0.484	-0.369
CM	Less than 5	55	2.717	0.430	0.103	-1.100
	5 - 10	230	2.699	0.360	0.281	-0.128
	10 - 15	291	2.687	0.375	0.374	-0.016
	Over 15	124	2.620	0.383	0.478	0.274

〈Table 11〉은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진로성숙도에 나타나는 대한 경력별 차이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1〉에 제시된 분석결과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진로성숙도는 경력에 따른 상호작용과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한 진로성숙도는 경력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2.928, p < .05$). 그리고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한 진로성숙도는 경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151,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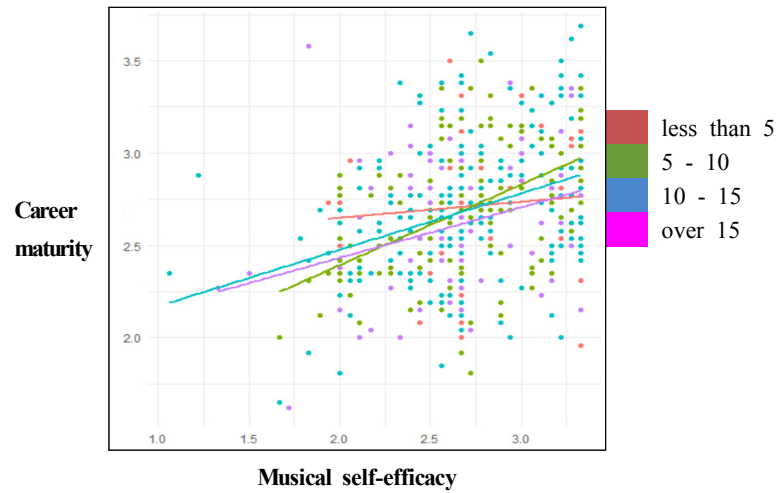
또한 [Figure 3]은 경력에 따르는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변화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Table 11> ANCOVA of career maturity among career(year)

(N=700)

Domain	Career(year)	CM		Marginalized CM		F
		M	S-D	M	S-E	
MS	Less than 5	2.717	0.430	2.647	0.047	1.914
	5 - 10	2.699	0.360	2.713	0.022	
	10 - 15	2.687	0.375	2.689	0.019	
	Over 15	2.620	0.383	2.624	0.030	
PSI	Less than 5	2.717	0.430	2.709	0.049	2.928*
	5 - 10	2.699	0.360	2.700	0.023	
	10 - 15	2.687	0.375	2.691	0.020	
	Over 15	2.620	0.383	2.625	0.031	
MSE	Less than 5	2.717	0.430	2.662	0.048	4.151**
	5 - 10	2.699	0.360	2.726	0.023	
	10 - 15	2.687	0.375	2.679	0.020	
	Over 15	2.620	0.383	2.598	0.031	

* $P<.05$, ** $P<.01$



[Figure 3] Career maturity by career considering musical self-efficacy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전공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로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서울 4년제 음악전공 대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공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성은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관현악을 전공하는 학생의 평균이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서 다른 전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은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에서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 보다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각 변인 간 실시한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진로성숙도와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분상관분석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가 다른 변인들을 고려했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도를 고려했을 때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에는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진학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에게서 더 크게 드러난 연구와 같이(Kim & Sax, 2009; Choi, 2016에서 재인용),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에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지만 단, 그 영향력은 동일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진로에 대하여 여성이 가지는 자기효능감이 남성에 비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연구(Yang & Han, 1999),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에 유의미한 예측을 갖는 변인이지만, 성별

차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고한 이상길(Lee, 2008)의 연구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전공별에 따른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에는 전공별로 진로성숙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전공에 따라 진로성숙도 변화의 폭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전공별로 지각하는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지연(Hong, 2018)은 음악전공별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높은 인식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전공에 대한 높은 인식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진다고(Han, 2013). Bandura (1997) 또한 자기효능감이 진로와 관련한 높은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스스로가 지니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확신은 음악적 영역 수준을 향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계획, 관심, 목적, 선택에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학년별로 나타나는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에는 학년과 진로성숙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도 변화의 폭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일반적 경향성을 보면,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곡선을 보이다가 고학년이 되면 다시 낮아지는 포물선 곡선을 보이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학년에 집중된 개입은 지양하고 순차적, 단계적, 체계적인 교수전략과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를 예측하는 변인 중 설명력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고려하여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공만족도를 고려했을 때 경력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경력에 따라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경력과 진로성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경력에 따라 진로성숙도 변화의 폭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음악전공 대학

생들의 전공경력과 연주활동자신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사이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밝힌 연구(Jang & Sim, 2013), 음악과 같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준비와 경력 면에서 유사한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경력이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준비 변인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한 연구(Kim & Hyeon, 2008; Park, 2006) 등을 통해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성숙도 변화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 변인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학생 진로지도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술통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전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악전공 대학생 사이에 격차가 큰 역량이 무엇인지를 더욱 상세히 파악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음악전공 대학생의 역할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등에 활용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직·간접 효과를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음악전공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다른 변인(전공,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을 고려한 관계분석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 변인(성별, 전공, 학년, 경력)에 따라 나타나는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전공, 학년, 경력은 진로성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공, 학년, 경력과 음악적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 학년, 경력을 고려했을 때 진로성숙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

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음악전공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고려한 공분산이 본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개인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하위영역들이 진로성숙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일부 대학 및 전공을 한정하여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지역, 전공 등과 같이 조사대상의 폭 확대와 더불어 실험연구를 통한 인과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Astin, A. W.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aek, J. H. (2007). *Relationships among body esteem, learning attitudes and major satisfaction of dance students i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 Baek, S. G. (2000). Inquiry on the concept of educ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3(1), 1-20.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4.
- _____.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_____. (199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_____.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W. H. Freeman and Company.
- Beckett, R. D., Sheppard, L., Rosene, A., & Whitlock, C. (2016). Student and faculty perceptions of humor in the pharmacy classroom. *Currents in*

- Pharmacy Teaching and Learning*, 8(2), 226-234.
- Braskamp, L. A., Wise, S. L., & Hengstler, D. D.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part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4), 494-498.
- Choi, B. K. (2016). Estimating change in student-faculty interaction: Test of the effects of student characteristics and early college experience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3(1), 185-208.
- Choi, I. H.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vocational maturity development using growth mixture model: From late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32(1), 155-181.
- Choi, J. A., & Yang, D. S.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taekwondo major student.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6(4), 421-430.
- Cho, W. S. (2008).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ccordance with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 Thesis, Daejin University.
- Comunian, R., Faggian, A., & Jewell, S. (2014). Exploring music careers: music graduates and early career trajectories in UK. in N. Crossley, S. McAndrew and P. Widdop(eds), *Social Networks and Music Worlds*. Abingdon, OX: Routledge.
- Crites, J. O. (1978).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2nd ed.)*. Monterey, CA: CTB/McGraw-Hill.
- Eggen, P., & Kauchak, D. (2007). *Educational psychology: Windows on classrooms(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Hall.
- Ginzberg, E.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 H. S.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Han, S. J.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5(5), 559-566.
- Han, Y. J. (2014).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 Han, Y. J., & Lee, J. H. (2013).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9(2), 76 - 92.
- Herr, E. L., Cramer, S. H. & Niles, S. G. (2004).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span: Systematic approaches*(6th ed.). Boston. MA: Pearson.
- Hong, E. Y. (2017). Convergence study of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with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8(10), 85-93.
- Hong, J. Y. (2018). A study of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major of music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2), 265-290.
- Im, H. J., & Kim, N. O. (201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experience influencing changes in career maturity: Focused on four-year college students. *Korean Education Inquiry*, 37(1), 115-137.
- Jang, G. J., & Sim, S. Y. (2013). A Correlation between undergraduate music majors' self-efficacy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in Korea*, 42(4), 101-120.
- Jeong, H. Y. (2010).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Doctoral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 Jeong, Y. J., & Byun, S. H. (2017). Medi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in influen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6), 225-238.
- Jo, M. G., & Koo, N. W. (2016). An exploration of the trends of school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of male and female students and their longitudinal relationship.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119-141.

- Kim, H. S., & Moon, S. T. (2011). The influences of communications with parent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conscientious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2), 183-195.
- Kim, J. H., & Choi, B. Y. (2015).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Youth Welfare*, 17(4), 143-169.
- Kim, M. R., Yu, Y. L., Hwang, E. H., & Kim, S. Y. (2019). Analysis of the developmental type and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using latent transition analysis.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 173-197.
- Kim, M. S., & Choi, B. G. (2016). The sex difference in relationship model among faculty-students interactions and higher-order learning, career commi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engineering interests and major and schoo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4(1), 151-181.
- Kim, Y. K., & Sax, L. J. (2009).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 research universities: Differences by student gender, race, social class, and first-generation statu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0(5), 437-459.
- Kim, Y. M., & Hyeon, S. H. (2008). The relationship among dance career, career self-efficacy, academic adjus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17, 1-19.
- Kuh, G. D., & Hu, S. (2001). The effect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in the 1990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4(3), 309-332.
- Latham, G. P., &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12-247.
- Lee, J. H.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clusters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resilience and the career matura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2), 39-59.
- Lee, K. W. (2006). The Investigation of new strategies for the profession at collegiate school of music: Focused on the violin performance major.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1, 89-117.

- Lee, S. K. (2008).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status across high schoolers, undergraduates, and gende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1(3), 217-230.
- Lee, S. Y. (2014). The effects of self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1), 109-128.
- Lei, M., & Lomax, R. G. (2005).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2(1), 1-27.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Lim, C. S., & Yang, B. M. (2006). An analysis of employment selection and school to work transition(STWT)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4(3), 1-25.
- Lim, D. K., Kwon, H. S., & Oh, W. J. (2016). The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major satisfac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employability, employment strategies, major hope for employment: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Tax and accounting.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6(4), 85-109.
- Lim, H. S., & Cho. Y. H. (2017).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group practice on student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music performance education.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in Korea*, 46(4), 129-152.
- Logue, C. T.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 Martin, L. M. (1998). *Developmental change in college students-A study based on chickering's model of student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McPherson, G. E., & McCormick, J. (1999).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musical practice.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41, 98-102.
- Milsom, A., & Coughlin, J. (2015).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 A grounded theory study. *NACADA Journal*, 35(2), 5-14.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NY: McGraw-Hill.
- Oakland, J., Macdonald, R. A., & Flowers, P. (2012). Re-defining 'Me': Exploring career transi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in the context of redundancy for professional opera choristers. *Musicae Scientiae*, 16, 135-147.
- Oh, I. S. (2002). General self-efficacy: The concept, measuremen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HRM.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5(3), 49-72.
- Ok, S. H. (2016). *The development of the collage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ing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Pyeongtaek University.
- Park, J. H.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arental support, friends' support on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freshmen's: A mediating effect of the self ident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5), 859-880.
- Park, J. 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dance student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17(3), 47-60.
- Park, M. S. (2017).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music major.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2, 73-87.
- Park, S. J., Keel, I. S., & Ra, J. M. (2019). Study on musical-self efficacy scale valid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6), 561-577.
- Park, S. J., & Ra, J. M. (2019). Medi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with applied music major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2), 1-15.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Ritchie, L., & Williamon, A. (2011). Measuring distinct types of musical self-efficacy. *Psychology of Music*, 39(3), 328-344.

- Smart, J., Feldman, K., & Ethnington, C. (2000). *Academic disciplines: Holland's theory and the study of college students and faculty*. Nashville, TN: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Song, Y. J. (2013).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So, Y. J., & Park, J. S. (2016).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6(4), 23-44.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NY: Harper & Row.
-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2nd ed.)*.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ang, E. J., & Han, J. C. (1999). The study of the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career decis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1(1), 79-94.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51-59.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chieve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29, 663 - 676.

Received: 31 May 2020, Reviewed (Revised): 4 July (9 July) 2020

Accepted: 27 July 2020, Published: 31 August 2020

Sejin Park: E-mail: sj0416@kookmin.ac.kr

Lecturer,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Korea

Jongmin Ra: E-mail: rems2002@gmail.com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Korea